

고1
공통국어1
해냄

2026 고1 공통국어1 해냄 | 1(2) 대화, 공감과 소통 기술 서술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대화, 공감과 소통」은 대화의 원리의 종류와 필요성, 대화의 원리를 고려한 대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설명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와 세부 내용 일치 문제, 대화의 원리의 특성을 묻는 문제, 사례를 제시하고 대화의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 담화 관습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글에서 대화의 세 가지 원리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태도와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지식, 의견, 감정 등을 공유한다. 대화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대화를 통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며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

첫째, **협력의 원리**이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대화의 목적이나 요구에 맞게 대화를 하고 상대방도 이에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협력의 원리에 따라 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하며,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한다. ‘아무거나, 아무 데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좋다.

둘째, **공손성의 원리**이다. 협력의 원리가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관련한 것이라면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공손성의 원리는 결국 상대방을 고려하는 말하기의 방법으로,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를 기반으로

로 한다. “너무 어두우니 불 좀 켜.”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대화를 이어 나가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셋째, **체면 유지의 원리**이다. 체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주장하고, 보호하고 싶어 하는 공개적인 자아의 모습을 뜻하며, 상대방에 의해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간섭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다. 체면 유지의 원리는 이러한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체면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대화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손성의 원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상대방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비방하는 것은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체면 손상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한편 대화를 할 때에는 자신의 듣기·말하기 행위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화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지, 듣는 사람의 처지나 수준에 적절한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두 전문가의 견해를 비교하여 대상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대상에 관한 여러 원리를 나열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기존의 통념을 반박하며 대상을 분석하고 있다.
- ④ 대조적인 사례를 들어 공손성의 원리와 체면 유지의 원리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화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대화를 할 때 목적과 요구에 맞게 대화를 해야 한다.
- ② 대화를 할 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상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③ 대화를 할 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
- ④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하여 말하는 것이 좋다.
- ⑤ 대화는 화자의 일방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이어 나가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이다.
- ② 대화 상대방보다는 자기 자신의 태도와 처지를 고려하는 말하기 방법이다.
- ③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원리이다.
- ④ 직설적인 말하기보다는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 ⑤ 대화 상대방과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말을 주고 받는 태도가 필요하다.

4. 다음 <보기>에서 **협력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미리: 정현아,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해?
 정현: 오늘 학교 끝나고 가족들과 저녁 먹기로 했어.
 미리: 그렇구나. 그러면 내일은 학교 끝나고 뭐 해? 저기 사거리 앞에 떡볶이집이 새로 생겼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정현: 오늘 그 식당에 간다는 생각에 신나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거 있지. 어서 학교가 끝나면 좋겠다.

미리: (황당한 표정으로) 뭐라고?

- ① '정현'의 첫 번째 대답은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고쳐 써야 한다.
- ② '정현'의 첫 번째 대답은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 ③ '정현'의 두 번째 대답은 '미리'의 질문의 의도에 맞게 내일 학교 끝나고 난 뒤의 일정을 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정현'의 두 번째 대답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정현'의 두 번째 대답은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익준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익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어린이날인 내일 아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함께 먹겠다며 기쁘게 퇴원한 환자는,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다시 오게 된다. 익준은 어린아이에게 어린이날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 기억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정이 지난 후에 장기 기증 수술을 진행하고자 한다.

익준: ○○대 병원에서 왔죠?
 의사: 예, 교수님.
 익준: (한숨) 저기.....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의사: 네.
 익준: 심장 적출하는 거 10분만 미뤄도 될까요? 병원에 전화해서 가능한지 먼저 확인부터 해 보시고, 거기 상황 급하면 바로 해도 됩니다.
 의사: 괜찮습니다. 10분 정도는. 우리가 일찍 온 거라서요.
 익준: 오케이. 그럼 지금 11시 50분이니까 10

분만 있다가 인시전 넣어도 되죠?
-이우정 각본 / 신원호 연출, <슬기로운 의사 생활>

- ① '익준'은 상대방을 수직적인 관계에서 낮추어 말하고 있다.
- ② '의사'는 '익준'의 부탁에 기분이 상했으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 ③ '익준'은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줄여서 말하고 있다.
- ④ '익준'은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을 늘려서 말하고 있다.
- ⑤ '익준'은 의문문 형식으로 부탁의 말을 전함으로써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이고 있다.

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취업난에 이어 불친절한 일부 채용 기업의 태도에 취업 준비생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진심이 담긴 글로 서류 전형 불합격자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기업이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안녕하세요. ○○ 기업 채용 담당자입니다. 금번에 실시한 ○○ 기업 신입 사원 모집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류 지원 과정 중 저희가 의도치 않게 불편하게 한 점은 없었는지 여러모로 마음이 쓰입니다. 귀하의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서류 심사 과정에서 귀하의 합격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귀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니 서류 발표로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저희 회사에 지원하셨던 경험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멋진 역할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해 주신 개인 정보는 모두 폐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추후 재지원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이번에는 좋은 만남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되었지만 이후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 기업도 빠르게 성장하여 다음 기회에는 더욱 많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의 공채에 지원한 취업 준비생들은 “불합격했지만 위로받은 기분이라 훈훈했다.”라며 “기분 좋은 탈락”이라고 입을 모았다.
- 《매일경제》 (2015. 10. 29.)

- ① ○○ 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불합격한 지원자의 상황과 기분을 고려하여 불합격 소식을 전하고 있다.
- ② ○○ 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불합격한 지원자의 부족한 점을 일부분 비방하고 있다.
- ③ ○○ 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지원자의 능력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 ④ ○○ 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보낸 편지를 읽은 지원자는 위로받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 ⑤ ○○ 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체면 유지의 원리를 잘 지켜 표현하였다.

7. 다음과 같이 상황을 가정하여 대화를 나누었을 때 대화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은?

- ① (가) 새 학기 새로 만난 친구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상황
다운: 안녕, 나는 이다운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나는 그림 그리고 보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중학교 때 미술 동아리를 했었어. 앞으로 잘 지켜내보자.
예진: (쉬는 시간에) 안녕? 다운아, 나는 첫 번째로 자기소개했던 박예진이야. 나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 정말 반가워.
- ② (나) 백일장 대회에서 수상하지 못한 친구를 위로하는 상황
영희: 너의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다음 백일장

에서는 분명 수상할 거야.

재오: 위로해 줘서 고마워. 다음에 더 잘 준비해서 다시 도전할 거야

③ (다) 친구에게 발표 순서를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

현진: 정윤아,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혹시 발표 순서를 바꿔 줄 수 있을까?

정윤: 현진아,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괜찮은 거야?

④ (라) 가족 행사로 인해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

예원: 다들 이번 과제 준비한다고 고생했어.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학교 앞 분식집 가는 거 어때?

동민: 아, 나는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왜 하필 내가 가족 행사가 있는 날 분식집에 가자고 하는 거야?

⑤ (마) 시험을 앞두고 친구에게 필기 노트를 빌리는 상황

가희: 철민아, 미안한데 내가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필기를 못 했어. 혹시 필기 노트를 빌려줄 수 있을까?

철민: 그랬구나. 지금은 몸이 괜찮아졌니? 당연히 빌려줄 수 있지.

8. 언어생활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 있게 대화했는가?
- ② 대화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했는가?
- ③ 상황에 맞는 소통 방법을 사용했는가?
- ④ 간접적인 표현보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는가?
- ⑤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하며 대화했는가?

【9~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말을 할 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잘 모르면 우리

말을 온전히 사용하기 어렵고, 우리의 담화 관습을 잘 모르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우리의 담화 관습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맥락을 중요시한다. 예로부터 한국 사회는 예절을 중시하고 가족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강했다. 오랜 기간 농사를 짓고 살면서 씨족 공동체를 이루고 두레 등을 중심으로 협동 작업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강조하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상황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다음과 같은 담화 관습이 생겨났다.

첫째, 말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담화 관습이다. 우리의 언어 전통에서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말에는 말하는 이의 인간됨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만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거나 상황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속담이 많다. 이러한 담화 관습은 말실수를 적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는 한편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둘째, 돌려 말하는 담화 관습이다.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빈말이라도 호감과 호의를 표현하고 싶어 하며, 체면을 중시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직설적인 표현 대신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화법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간관계에서의 긴장감을 줄이고, 서로 간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겉치레의 말로 여겨질 수도 있다.

셋째,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는 담화 관습이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남녀, 노소, 신분, 친소 등 여러 관계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을 나누고 각 관계에서 격식을 중시하였다. 그러다 보니 상하 관계를 규정하고 서로 간에 질서를 강조하여 자연스럽게윗사람의 겸양과 아랫사람의 공손을 중요시하는 언어문화가 형성되었다. 우리말에서 대상을 높이는 어휘가 다양하게 발달한 것과 상대에 따라 높임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도 모두 이러한 문화의 소산이다. 격식을 중시하는 문화는 겸양과 공손의 태도로 타인을 배려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혈연을 중심으로 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해 왔으며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어 사용도 달라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언어 사용 양상이 세대 간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줄임말, 직관적인 표현, 여러 언어가 혼용된 말, 이모티콘을 통한 감정 표현 등은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담화 관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 이창덕,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9.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잘 모르면 우리말을 온전히 사용하기 어렵다.
- ②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예절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 ③ 우리의 담화 관습을 잘 모르더라도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 ⑤ 우리의 담화 관습은 개인보다 집단을 중요시한다.

10.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우리말의 담화 관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말에서 대상을 높이는 어휘가 다양하게 발달한 것은 돌려 말하는 담화 관습의 영향이다.
- ② 돌려 말하는 담화 관습은 불필요한 걸치레의 말로 여겨질 수도 있다.
- ③ 직설적인 표현 대신 돌려 말하는 표현을 자주 쓴다.
- ④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는 담화 관습 때문에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종종 있다.
- 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간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만 사용하는 신중함을 강조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이 글에서는 원활한 대화를 위해 지켜야 하는 대화의 원리인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를 나열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이 글에서는 두 전문가의 견해를 비교하여 대상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③ 이 글에서는 기존의 통념을 반박하며 대상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 ④ 이 글에서는 대조적인 사례를 들어 공손성의 원리와 체면 유지의 원리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 ⑤ 이 글에서는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2. [정답] ①

2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대화의 목적이나 요구에 맞게 대화를 하고 상대방도 이에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협력의 원리에 따라 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대화를 할 때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대화를 할 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해야 하므로 과장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화자의 일방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정답] ②

㉠공손성의 원리는 자기 자신의 태도와 처지보다 대화 상대방을 고려하는 말하기 원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은 대화를 이어 나가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은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

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원리이므로 적절하다.

- ④ ㉡은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 좋으므로 적절하다.
- ⑤ ㉡은 대화 상대방과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 [정답] ③

'정현'의 두 번째 대답은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미리'의 질문의 의도에 맞게 내일 학교 끝나고 난 뒤의 일정을 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내일은 별일 없어.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까?" 등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① '정현'의 첫 번째 대답은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정현'의 첫 번째 대답은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정현'의 두 번째 대답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정현'의 두 번째 대답은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정답] ⑤

<보기>에서 '익준'은 '~될까요?'라는 의문문 형식으로 부탁의 말을 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이고 있다. 따라서 공손성의 원리를 잘 지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익준'은 '의사'를 수직적인 관계에서 낮추어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의사'는 '익준'의 부탁에 기분이 상했는지 <보기>를 통해 알 수 없으며, '익준'이 공손성의 원리를 잘 지켜 말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익준'은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익준'은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을 늘려서 말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②

○○ 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불합격한 지원자의 부족한 점을 비방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자의 체면을 훼손하지 않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적

절하지 않다.

- ① ○○ 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불합격한 지원자의 상황과 기분을 고려하여 ‘안타깝게도 서류 심사 과정에서 귀하의 합격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와 같이 부드러운 표현으로 불합격 소식을 전하고 있다.
- ③ ○○ 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귀하의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와 같이 지원자의 능력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 ④ <보기>의 ‘지원한 취업 준비생들은 “불합격했지만 위로받은 기분이라 훈훈했다.”라며 “기분 좋은 탈락”이라고’ 밝힌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 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잘 지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7. 정답 ④

동민은 가족 행사로 인해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는 상에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손성의 원리와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④가 정답이다. ①, ②, ③, ⑤는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8. 정답 ④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라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 ①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라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 있게 대화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② 협력의 원리에 따라 대화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③ 대화 상황에 따라 적합한 소통 방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⑤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라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하며 대화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9. 정답 ③

1문단에서 ‘우리의 담화 관습을 잘 모르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정답 ①

우리말에서 대상을 높이는 어휘가 다양하게 발달한 것은 돌려 말하는 담화 관습이 아닌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는 담화 관습의 영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